화합으로 종단 일으켜 중생 제도 나서라



대한불교법화종 제14대 종정 암현 스님이 창종 80주년을 맞아 주석처인 강원도 평창 연화사에서 본지와 특별 인터뷰를 갖고 있다. 1975년 탄허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총무원 기획실장 · 교무부장 · 강원교구 종무원장 장 등을 두루 역임한 암현 스님은 이날 지난 80년의 역사를 회고하며 종단이 나아갈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바른 견해로 종단을 세우고(정견입종), 화합으로 일으키며(화합흥종), 함께 중생을 구제하자(공제군생)"는 교시를 내렸던 암현 스님은 이번 인터뷰에서도 다툼 없는 화합과 법화사상의 실천을 거듭 강조했다.

대한불교법화종 창종 80주년

① 법화종 80년, 새시대 새울림
② 총무원장 관효 스님에 듣다
③ 종정 스님께 듣는 법화 지혜
④ 법화종 이끄는 스님들 만나다
⑤ 사진으로 보는 법화종 발자취

대한불교법화종이 5년여의 내홍을 완전히 매듭짓고 새 어른을 맞이했다. 창종 80주년이라는 역사적 분기점에서 제14대 종정으로 추대된 암현 대종사 예하를 뵙고 고통받는 현대 사회를 향한 지혜의 가르침을 들었다. 〈편집자 주〉

Q 창종 80주년이라는 중차대한 시기에 종단의 최고 어른이자 정신적 지주라는 중책을 맡으셨습니다. 취임 소회가 어떠신지요?

헌첩식에서 "오늘 받는 헌첩이 산처럼 무겁도다"라고 말했습니다. 한때의 수사가 아닙니다. 종정은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부처님과 종도들 앞에서 더 무겁게 스스로를 살피는 자리입니다. 종단이 오랜 내홍을 지나 다시 일어서야 하는 때이니 그 무게가 어찌 가볍겠습니까.

다만 이 무게를 저 혼자 지는 짐이라 생각지 않습니다. 산은 한 사람 어깨에 올리면 짐이 되지만, 대중이 함께 받들면 도량이 됩니다. 사부대중이 함께 지는 원력으로 이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어려울수록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결국 바르게 보고, 함께하고, 함께 건네는 '기본'입니다.

Q 전 종정 도선 스님께서 종단 화합을 위해 용퇴하셨습니다. 스님께서 다져놓으신 '화합의 반석'을 어떻게 계승하고 발전시키실 계획입니까?

전임 도선 대종사님의 용퇴는 당신의 뜻보다 대중을 앞세운 큰 회향입니다. 화합의 반석을 다지는 일은 좋은 말만 반복해서 되지 않습니다. 화합은 만나야 생깁니다.

각 교구와 사찰, 비구니 스님들, 원로와 후학, 재가불자까지 종단 안의 여러 목소리가 법(法) 안에서 만나는 자리를 자주 만들겠습니다. 또 하나는 화합을 제도 위에 올려놓는 일입니다. 종헌·종법을 정비하고 교육 체계를 세우는 것이 곧 화합을 지키는 울타리입니다. 흔들리지 않을 기초를 놓는 데 마음을 다하겠습니다.

Q 취임 법어에서 '정견입종(正見立宗), 화합흥종(和合興宗), 공제군생(共濟群生)'을 첫 교시로 제시하셨습니다. 참뜻이 궁금합니다.

바르게 보아 종단을 세우고, 화합으로 종단을 일으키며, 함께 중생을 건지자는 뜻입니다. 종도들이 날마다 스스로를 살피는 생활의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

정견입종은 종단의 재산, 제도, 인사를 사사로운 눈이 아니라 공심(公心)으로 바르게 보아야 분란이 사라진다입니다. 화합흥종은 원칙 없는 타협이 아니라, 바른 견해 위에서 서로를 살리는 화합을 의미합니다. 공제군생은 종단이 자신만을 위해 존재하면 안 됨을 말합니다. 신도들이 위로받고 후학이 배울 길을 찾을 때, 우리의 노력이 중생을 향할 때 비로소 법이 살아납니다.

Q "나의 교시가 명령이 아니라 매일 스스로를 점검하는 한 줄의 점검표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하셨습니다. 종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지침을 가졌으면 합니까?



정견으로 종단 일으키고
화합하에 종단 중흥 발전
중생 구제 대원력 세우는
법화사상 실천 교시 내려

교시가 남을 꾸짖는 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세 가지를 물어야 합니다. "오늘 나는 바르게 보았는가, 화합을 깨는 말을 하지 않았는가, 한 사람이라도 건지는 마음을 냈는가."

구체적으로는 말과 행동을 맞추고, 책임질 수 없는 말은 삼가야 합니다. 사찰 재정과 종단 재산은 투명하게 살펴야 하며, 권리보다 의무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어려운 사찰을 함께 붙들고, 외로운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는 그 자리에서 법화의 실천이 시작됩니다.

Q 올해는 혜일 정각 대종사께서 종단을 중창하신 지 8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오늘날 종도들이 회복해야 할 '창종의 초발심'은 무엇입니까?

법화경 일승(一乘)의 마음으로 누구도 버리지 않고 품겠다는 원력입니다. 혜일 정각 대종사의 길은 좁은 종파 의식으로 사람을 가르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다양성은 살리되 법화의 중심으로 모으는 것입니다.

초심은 과거를 그리워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종단을 세웠는가"를 다시 묻고, 작은 사찰 하나, 외로운 신도 한 사람, 배울 길을 찾는 후학 하나를 버리지 않는 마음이 바로 초발심입니다.

Q 명실상부한 '제2의 도약'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무엇입니까?

밖에서 우리를 다시 보기 시작했다면, 안에서는 그 신뢰를 감당할 실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최우선 과제는 '신뢰의 제도화'입니다.

교육기관과 수계 체계, 재정의 공공성을 분명히 하여 사람이 바뀌어도 공정하게 굴러가는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총본산 안정사를 중심으로 가람 정비, 성보 보존, 교육기관 설립을 통합 추진하여 미래 100년의 뿌리를 다시 세우겠습니다.

Q 미래 100년을 이끌 청년 불자와 다음 세대 출가자 양성을 위한 비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종단을 살리는 일은 결국 사람을 기르는 일입니다. 총본산 안정사가 교육의 중심이 되어, 출가자 기초교육부터 주지·임원 연수, 재가신도 교양교육까지 단계적으로 체계화하겠습니다.

청년 불자에게는 '시키는 일'이 아닌 '배울 길'과 '질문할 수 있는 자리'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종단의 초대 종정이 비구니 스님이셨던 자부심을 살려 교육, 포교, 복지 영역에서 비구니 스님들과 재가 전문 인재들이 역량을 발휘하도록 돕겠습니다.

Q 1975년 탄허 스님을 은사로 출가하신 이래 50여 년간 수행해 오셨습니다. 스님의 삶을 지탱해 준 마음가짐은 무엇입니까?

만행의 시간, 작은 절 살림을 살던 시간 모두가 제게는 공부였습니다. 제 마음을 지탱한 말은 "종신행선 선유부족(終身行善 善猶不足), 일일행악 악자유여(一日行惡 惡自有餘)"입니다. 평생 선을 행해도 부족하고, 하루만 악을 지어도 남는다는 뜻입니다.

수행은 내 몸과 마음을 낮추는 일입니다. 경전을 많이 읽었다고 남을 내려다보면 공부가 아닙니다. 나보다 못하고 약한 사람을 받들어 줄 때 참된 공부가 됩니다.

Q 물질주의와 극단적 갈등으로 고통받는 현대인들이 『묘법연화경』의 지혜를 어떻게 일상에서 구현할 수 있을까요?

법화경은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평등의 가르침이자, "그 누구도 버려진 존재가 아니다"라는 부처님의 약속입니다. 일상에서의 실천은 내 앞의 사람을 가난, 학벌, 시주 크기로 재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잘되자고 비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내 이웃과 원수까지 함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 따뜻한 밥 한 그릇과 안부 전화 한 통이 큰 법문이 됩니다. 흙탕물 속에서도 연꽃이 피듯 서로를 공경해야 합니다.

Q 마지막으로 사부대중과 사바세계의 중생들을 위한 축원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법화종의 새로운 100년은 오늘 내 앞의 한 사람을 버리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지금 고단한 사람도 부처 될 사람이고, 실패한 사람도 다시 일어설 사람이며, 외로운 사람도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서로의 허물을 조금 더 덮어주고, 맡은 자리에서 정직하게 살아갑시다.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대한불교법화종 사부대중과 모든 중생의 길 위에 두루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